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도서관, 디지털 체험학습 운영

‘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상시 운영 예정

유·초등 저학년 대상, 도서관 이용법·예절 교육 실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 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과 도서관 예절을 교육하고, 4차 산

업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 방법 및 예절을 배우는 ‘깨비가 나타났다’ ▲그림책 읽어주기 ▲다면형 AR 동화, 핑거링북, AR북카드를 체험하는 ‘*리딩테인먼트’ ▲자율 독서 시간 등 시청각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이 진행될 예정이다.

*리딩테인먼트란 리딩(reading)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더한 단어이다.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김태문 관장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교육에 맞춰 도서관에 접목한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면서 도서관 예절도 배우고, 독서에 대한 관심도 키울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추후 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학습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은 하반기에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참여학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재환기자



담양교육청, 자원순환·생태환경 연수 실시



담양교육지원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26일 유·초·중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생태환경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주녹색소비자연대 김영임 강

사를 초청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변화와 쓰레기가 지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알아 보았다.

또한 친환경 생활화를 위해 학교 및 가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사례와 쓰레기를 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담양동초 교사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오늘 연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빨리 실천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순천대, ‘노지분야 스마트 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 사업’ 총괄과제 선정

인공지능공학부 여현 교수 연구팀

순천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 여현 교수 연구팀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노지분야 스마트 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지난 4월 1일 맺은 연구개발 협약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총 2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3년간 노지분야 스마트 농업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 검인증 체계 개발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노지 농업 생산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주기 데이터 활용체계 선도모델 확립과 핵심 농기계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 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3개의 협업과제(머신비전, 드

론탐재용 다중센서, 수제정보 기반 관수시스템 등 국산화)를 지원하는 총괄과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지분야 기술 표준화와 장비 국산화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특히,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융합 연구센터(센터장 여현 교수)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재)전북테크노파크 ▲(경)농 ▲(취)유비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등 협동 기관은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취업 연계로, 향후 해당 연구개발 사업의 후속인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인)·예타 사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참여교수인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는 “해당 연구사업을 기점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지고 노지 농업 기술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관행농법’을 새로운 ‘표준 기반의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무안교육청 Wee센터, 초등 부모교육 실시

‘우리아이 성 이해하기’ 주제

무안교육지원청은 26일 무안 관내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아이 성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부모교육은 성교육 전문강사인 우선영(푸른아우성)강사님을 모시고 아동·청소년기 성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성문화’에 대한 이해와 아동기·사춘기 아이들이 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었다.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성이라는 주제로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청소년기가 다가올 아



이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겠다.”라고 전했다.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오는 6월 24일 관내 중등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건강한 성발달을 위해 맞춤형교육을 또 한 번 실시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강진교육청, ‘행정국장·새내기 공무원과 스몰 토크’시간



강진교육지원청 26일, 관내 신규 일반직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강진 하나의 정월 및 월남사지 일원에서 행복한 워라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국장 & 새내기 공무원과의

관내 신규 일반직공무원 8명 대상

스몰 토크’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의 시간에 참여한 선배공무원 김준호 행정국장은 직접 드롭인 커피를 나눠주시며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식 취득 노하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신규공무원이 겪을 고민을 상담해 주기도 하였다.

‘행정국장 & 새내기 공무원과의 스몰 토크’ 시간에 참석한 청람중 공은혜 주무관은 “국장

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왠지 모를 포근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한편, 강진청람중 황준호 주무관은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관사 확보가 어렵다”라는 애로 사항을 말하기도 하였다. 이날, 김준호 행정국장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인근 역사적 유적인 월남사지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의 공무원 역할에 대하여 비교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행정인의 역할에 대하여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논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내는 교육행정인의 사과의 전환을 함께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